

# 광주 FC 멀어진 승격... “기적이 필요해”

K리그2 7위...자력 PO 진출 불가  
3라운드 남은 3경기 다 이기고  
4위 대전 결과 따라 실낱 희망  
‘득점 1위’ 나상호 승리 요정  
마지막 투혼 발휘 바늘구멍 뚫기

광주 FC의 ‘에이스’ 나상호가 바늘구멍을 뚫는다.

지난 21일 수원 FC와의 홈경기에서 0-2패를 당한 광주는 벼랑끝에 서 있다. 광주는 이날 전 반전을 압도하고도 후반전 퇴장과 페널티킥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반면 FC 안양(12승 7무 14패·승점 43)과 수원 FC(13승 3무 17패·42점)는 이날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광주(9승 14무 10패·승점 41)를 7위로 끌어내리고 각각 5·6위 자리를 차지했다.

광주가 목표로 했던 플레이오프 마지막 순서 ‘4위’ 대전시티즌(14승 12무 12패·승점 49)과는 승점 8점 차다.

K리그 2는 이제 3라운드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가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4위 계산은 복잡하다.

안양과 수원의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현재 4위가 가장 유력한 팀은 역시 대전이다.

대전이 남은 경기에서 1승만 올려도 광주의 4위 꿈은 깨진다. 대전이 2무 1패로 시즌을 마무리해도 광주는 3승을 하고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

대전이 1무 2패를 기록할 경우 광주에 희망이 남는다. 광주가 3연승으로 승점 50점을 채우고 득점을 따져보면 된다.

K리그는 두 팀의 승점이 같을 경우 득실차가 아닌 득점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광주는 33라운드까지 43득점에 성공하면서 42득점의 대전에 앞서 있다. 3승을 가정할 경우 최소 3골이 더해지는 만큼 다득점에서는 광주가 앞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광주에는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있다. ‘에이스’ 나상호의 발이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겨냥하고 있다.

나상호의 골은 광주의 승리로 직결되고 있다. 15골로 K리그 2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나상호가 골 세리머니를 펼친 날 팀은 9승 3무 1패의 전적을 냈다. 올 시즌 광주가 거둔 9승에 모두 나상호가 있었다.

특히 나상호가 멀티골을 기록한 4월 21일 수원 FC전에서 광주는 5-0 대승을 거뒀다. 나상호가 시즌 두 번째 멀티골을 기록한 9월 30일에도 광주는 서울 이랜드를 4-1로 제압했다.

나상호는 극장골의 주인공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6월 3일 대전원정에서 나상호는 0-1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에 이한도의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을 장식하면서 2-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7월 21일 부천 원정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터트리면서 극적인 1-0 승리를 이끌었다. 나상호는 10월 6일 안방에서 재격돌한 부천에 다시 한번 충격적인 골을 안겨줬다.

0-1로 뒤진 후반 45분 나상호가 부천의 골망을 출렁이게 하면서 팀을 패배에서 구하고 승점을 보냈다.

나상호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빠졌던 5경기를 제외하고 28경기에서 15골을 터트리면서 경기당 0.54개의 골을 생산



15골로 K리그 2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 FC의 나상호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앞장선다. 나상호가 올 시즌 골을 넣은 경기에서 광주는 9승 3무 1패를 기록했다.

해내고 있다. 플레이오프를 꿈꾸는 광주에 1위 아산 무궁화호는 또 다른 변수다. 경찰청이 내년부터 체육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수 수급 중단을 예고했다. 선수 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산은 ‘클럽 등록선수 수’는 최소 20명’이라는 K리그 선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내년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승격 자격을 잃은 아산을 대신해 2위 팀이 자동 승격되고, 5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참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광주는 4위를 목표로 달려야 한다. ‘승리를 부르는’ 나상호가 남은 세 경기에서 ‘기적의 가을’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비디오 판독 도입에도 ... 오심에 또 눈물

수원전, 광주 김민규 퇴장 오심 판정... 주도권 잡았던 경기 패배

광주 FC가 결정적인 오심에 또 울었다. 23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지난 2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33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 도중 발생한 광주 김민규의 퇴장을 오심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오심으로 인한 김민규의 퇴장 징계를 감면기로 했고, 이날 레드카드를 든 김영수 심판에게 5경기 배정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잘못이 바로잡아졌지만, 광주에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이었다. 광주는 오심이 나온 이 경기에서 0-2패를 당했다.

절박하게 4위를 노려보고 있는 광주에는 치명적인 패배였다. 이날 패배로 5위에 있던 광주는 7위까지 미끄러졌다. 4위 대전 시티즌과 승점 8점 차.

이날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는 광주가 주도했다. 전반전 부지런히 상대 진영을 누비며 공세를

펼친 광주는 후반에도 두현석과 펠리페 슈팅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박진섭 감독은 분위기를 살려 득점까지 이르기 위해 교체카드를 사용했다. 두현석을 뺀 박 감독은 김민규를 투입했다. 펠리페와 함께 김민규로 높이를 높여 상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김민규가 그라운드에서 오르자마자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김민규와 공중볼을 다투던 수원 FC의 조유민이 얼굴을 감싸 쥐며 주저앉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심이 김민규에게 다가왔고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팔꿈치 가격이 이유였다. 비디오 판독까지 이뤄졌지만, 결과는 반복되지 않았다.

김민규의 퇴장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르던 광주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수적 열세 속 마음이 급해진 광주 선수들의 움직임도 거칠었다. 후반 31분 나상호의 핸들링 파울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광주는 실점을 했다.

후반 추가 시간 맹공에도 끝내 골을 만들지 못한 광주는 오히려 역승 상황에서 추가 실점도 했다.

뒤늦게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없던 퇴장’이 됐지만 매년 오심에 울었던 광주는 다시 또 결정적인 순간 눈물을 흘렸다.

광주는 졌다.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김민규의 퇴장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지존 굳히기



박성현 내일부터 대만 챔피언십 출전

박성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윙잉 스키츠 타이완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에서 시즌 4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5주 연속 대회가 열리는 ‘아시아 스윙’의 세 번째 대회로 25일부터 나흘간 대만 타이완의 다시 골프 앤 컨트리클럽(파72·6425야드)에서 펼쳐진다.

박성현은 올해 5월 텍사스 클래식과 7월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8월 인디안 인 테크 챔피언십 등에서 정상에 올랐다.

현재 세계 1위인 박성현은 2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22일 자 순위에서 박성현이 랭킹 포인트 8.11점으로 1위, 쥘타누간은 8.03점으로 2위다. 21일 끝난 뷰익 상하이 대회에서 쥘타누간이 공동 2위, 박성현은 공동 26위를 하면서 둘의 격차가 좁혀졌다.

8월 말부터 10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성현이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쥘타누간과 간격을 더 벌일 수 있다.

박성현으로서는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반대로 쥘타누간을 추격할 기회다. 쥘타누간이 219점으로 1위, 박성현은 136점으로 2위다. 둘의 간격은 83점 차이로, 올해 남은 대회는 스윙잉 스키츠 타이완 챔피언십을 포함해 4개가 전부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우승자에게 30점, 준우승자 12점 순으로 주기 때문에 박성현이 2년 연속 올해의 선수가 되려면 남은 4개 대회 가운데 최소한 3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우승 2회, 준우승 2회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 신인왕 등극



LPGA 고진영 확정...한국 4년 연속

고진영(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8시즌 신인상 수상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고진영은 21일 끝난 LPGA 투어 뷰익 상하이 대회까지 신인상 포인트 1137점을 기록했다.

2위 조지아 홀(잉글랜드)이 754점으로 고진영을 383점 차로 뒤쫓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남은 대회는 4개밖에 없다. 신인상 포인트는 우승자에게 150점을 주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홀이 남은 4개 대회 가운데 세 차례 우승할 경우 역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LPGA 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홀은 남은 4개 대회 가운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만, 일본, 중국 대회에 모두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홀은 신인상 경쟁에서 탈락했다.

고진영이 올해 신인상을 받지 못할 경우의 수는 홀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11월 일본, 중국 대회에 출전하고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까지 3개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해야만 가능해진다. 또 고진영은 남은 대회에서 신인상 포인트를 거의 추가하지 못해야 한다는 희망한 가능성까지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 선수의 LPGA 투어 신인상 수상은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올해 고진영이 12번째다.

박세리가 처음 신인상을 받은 1998년부터 올해까지 21년 사이에 교포 선수까지 포함하면 총 14번이나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선수들이 LPGA 투어 신인상을 휩쓸었다.

2015년 김세영, 2016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에 이어 한국 선수의 4년 연속 신인상 수상이고 2014년에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이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